

익산시, 스마트주차장 본격 운영

유료 공영주차장 10곳 대상 운영... 실시간 주차 정보 확인·요금 사전 결제·대리주차 신청 등

익산시가 주차장 정보 부족과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 주차 통합서비스 정식 운영에 돌입했다.

1일 익산시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유료 공영주차장 10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실시간 잔여면 확인은 물론 사전 결제와 대리주차도 신청할 수 있어 시민의 일상 속 주차 스트레스를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 주차 통합 서비스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카카오톡·네이버의 주차 플랫폼을 접목해 구축한 첨단 시스템이다. '익산시 스마트 주차 누리집(smartparking.iksan.go.kr)' 또는 '카카오톡' 앱을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 주차 누리집은 익산시 공식 누리집 초기화면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은 영동1·2동 공영주차장, 모현1~4공영주차장, 문화 공영주차장, 역골지구 공영주차장, 송학 공영주차장, 익산역 공영 주차타워 등 10곳이다.

주요 기능은 △주변 주차장 위치 및 실시간 잔여면 확인 △사전 요금 결제 △미납요금 확인과 간편 결제 △정기권 및 주차권 구매 △모바일 대리주차 예약 등이다. 대리주차 예약은 익산역 인근에 있는 공영 주차타워와 역골지구 공영주차장에서 운영된다.

특히 스마트 주차장은 지능형 폐쇄회로(CC)TV와 24시간 운영되는 통합 관제시스템이 차량의 입·출차를 자동 인식하고, 이상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해 보안과 안전성을 높였다.

시는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7월 한 달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스마트 주차 누리집에 가입한 이용자 중 20명을 추첨해, 유료 공영주차장 10개소를 한 달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정식 운영을 시작으로 모든 공영주차장에 스마트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하고, 교통정책 전반을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양경진 건설국장은 "스마트 주차 서비스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가장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실용적인 교통 변화"라며 "앞으로도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의 정책을 통해 익산시를 지속가능한 첨단 교통 도시로 도약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70만원으로 상향

군산시,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한시적 확대 운영

군산시가 7월부터 군산사랑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확대 운영한다. 이번 결정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들의 매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한도 상향 조치로 인한 추가 재원은 정부의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한 54억7,000만원의 국비 재원을 활용한다.

모바일 및 카드형 군산사랑상품권 구매 한도가 기존 월 50만원에서 최대 70만원으로 늘어나면, 시민들이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누리며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상품권을 70만원 구매하면 7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구매력 증가의 효과가 있다.

다만, 지류형 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는 기존과 같이 10만원으로 유지된다. 상품권 할인을 역시 기존과 똑같이 10%가 적용되며, 최대 보유 한도도 150만 원으로 변함없다.

한편 올해부터 도입된 10% 추가 인센티브(캐시백)는 책정된 예산 100억 중 87%(6월 30일 기준)가 소진되어 7월 중 마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상품권 결제 금액의 10%를 월 최대 2만 원까지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소비를 더욱 촉진하는 역할을 해왔다.

시는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상권 회복



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시민들의 생활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사랑상품권은 2018년 첫 발행 이후 현재까지 누적 발행액이 2조9,838억 원에 달하며, 지역 내 소비 확대와 지역 자립의 외부 유출 방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정부 국비 지원과 함께 군산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 확대는 침체된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계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소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군산사랑상품권을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청년 안정 정착 지원

익산시가 청년의 지역 정착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이어간다.

시는 '2025년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지원사업'의 신규 대상자 500명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상자들은 다음달부터 월 30만 원씩 최대 3년간 총 1,080만원의 근로청년수당을 지원받게 된다. 익산형 근로청년수당은 18~39세 중·중견기업 재직 청년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 시행된 익산시 대표 청년 정책이다.

생활 안정과 자산 형성, 장기 근속 유도를 통해 청년들의 지역사회 정착 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됐다. 앞서 2,200여명의 청년이 선정돼 혜택을 받았다.

특히 올해는 500명 모집에 총 852명이 신청해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시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역 인구 활력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함께 도모할 계획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익산시는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추가로 지원한다. 1일 밝혔다.

올해부터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가스열펌프 보유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 자가측정, 배출부과금 납부 등의 의무가 발생한다.

시는 환경 보호와 사업장 부담 완화를 위해 가스열펌프에 부착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장치 1대당 약 246~348만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되고, 지원받은 시설은 2년간 의무 사용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지난 3월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1차 공고를 진행한 데 이어 추가 예산 1억5,475만원을 확보해 50여대를 추가지원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국정과제 반영·추경 예산 확보 총력

최재용 신임 부시장, 부임 첫날 국회 방문... 주요 현안 대선공약 국정과제 반영 위한 지원 요청

익산시가 주요 현안의 국정과제 반영과 정부 추경 예산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재용 신임 익산시 부시장은 부임 첫날인 1일 대선공약 국정과제 반영과 정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이날 최 부시장은 이춘석·한병도 국회의원과 면담을 갖고, 익산시 핵심 사업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지역공약에 포함된 △국립식품박물관 건립 △양곡 자연환경복원 프로젝트 △익산역 광역환승체계 구축 및 복합개발 △세계유산 백제왕궁 역사문화벨트 조성 △부여~익산 고속도로 조기 착공 △재난안전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적극 설명했다.

아울러 익산시가 발굴한 △K-그린바이오 혁신 허브 구축 △전주권 광역전철(철도)망 구축△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 구축 △전북권 산재전명병원 건립 △청년 올인원(All-in-One)타운 조성 등의 타당성을 피력하며 국정과제 반영을 요청했다.

이날 최 부시장은 전북 국회의원과 만나 민생 안정을 위한 정부 2회 추경 예산 확보에도 나섰다.

정부의 제2회 추경과 관련해 △소상공인연수원 건립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센터 구축 사업 반영을 건의했다.

이들 사업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지역산업의 기반 강화를 위한 핵심 사업임을 강조하며, 정부 추경에서 반드시 반영돼야 하는

당위성을 전달했다. 현재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이춘석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한병도 의원이 맡게 되면서 익산시 현안이 국가 차원의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주요 사업들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를 방문해 설득하고, 세종사무소를 중심으로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의 공조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재용 부시장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 현안이 중앙정부의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며 "국회와 꾸준한 협력,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제6회 군산 숲 필름 페스타 개최... 내달 30일까지 접수

군산시가 군산시민예술촌(총장 최부현) 주관으로 '제6회 군산 숲 필름 페스타(다편영화제 영상공모전)'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과거 '군산개복단편영화제'로 진행되었으며, 올해는 명칭을 '군산 숲 필름 페스타'로 변경해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형 영화제로 확대 운영된다.

올해 공모전 주제는 '당신의 하루가 한 편의 영화가 됩니다.'로 일상·추억·기억·기록 등 모든 것이 주인공이 되어 일상의 순간들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필 수 있다.

만 19세 이상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출품작은 24초~1분(엔딩 크레딧 포함)의 분량으로 자유롭게 제작할 수 있다.

참가는 8월 30일까지 군산시민예술촌(www.gsartzone.kr) 누리집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완성된 영상과 함께 전자우편(gsartzone@naver.com)으로 접수하면 된다.

상금은 500만원 규모이며, 여기에 9월 13일 오후 2시 군산회관에서 열리는 영화제 당일, 본선 진출작 및 초청작이 상영된다. /군산=김만호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전주매일 캠페인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법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함도문화전자대전